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세상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 여러분의 몫입니다.

### 우리의 선교 향후 100년을 위한 준비

지금 바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지난 몇 년간 여성국 이사회에서는 비전 선언을 만들어 왔으며, 그 비전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5개의 영역을 가려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선교부의 감축으로 인해 국내 선교기관과 평신도 여선교사역자 및 국내선교동역자, 지역 선교사들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구체화되어 가면서 교회의 지배구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세계선교부의 이사회 축소 의지는 여선교회가 앞으로의 선교를 위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 숙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성국과 세계선교부의 이사들은 앞으로의 새로운 상호협력 구조에 대한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구조적인 분리와 선교적인 연계”가 바로 우리가 제안한 상호협력 관계의 새로운 네트워크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반화되었던 조직의 “지휘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21세기에 적합한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무엇을 해야하고, 어떻게 우선과제를 정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여선교회의 목적과 비전 선언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선교회 지침서와 부칙은 권위적인 경향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또한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을 넓히고 아이디어들을 시험해 봄으로써, 여선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은 더욱 원활해 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다 작은 규모의 전국적 수탁이사회와 충분한 인원의 프로그램 자문단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리스판스 6월호 14쪽 참조) 이는 여선교회가 전국적인 브레인스토밍에 참여하고 우리의 사역에 보다 원활한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여선교회 회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몇몇 회원들의 첫번째 질문 중 하나는 아마도 “과연 우리가 해낼수 있

을까?” 일 것입니다. 이번 변화는 운영경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이 재분배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임직원과 선출된 이사들은 최근의 경기 침체기 동안 경비의 절감에 총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불경기가 심화된 기간에도 파트너들과 선교사들,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여성교회 회원들의 약정헌금 이행률은 92%였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경기회복과, 회원들의 헌금으로 인해 우리는 더욱 견고한 재정적 기반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조직과 개편을 해왔던 기관으로써,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일, 교회와 지역사회 및 전세계의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일, 변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들을 찾는 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여정에 있어 또 한 걸음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이 시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또 그렇게 하면서, 선교하는 여성들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로서 이제는 우리가 선교를 위해 조직해야 할 차례입니다.

헤리엇 올슨

여성국 국장